장애대학생 진로 · 취업 탐색과 정보제공을 위한

2021 장애대학생 취업수기 공모전 작품집

서울 · 경기지역 장애대학생지원 실무협의회

서울·경기지역 장애대학생지원 실무협의회는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 대학의 장애대학생 지원 실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의 모임입니다. 본 협의회는 아래 50개교 대학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기준)

(가나다순)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서울)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민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경희대학교(서울) 경희대학교(국제)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서울) 동덕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자연) 부천대학교 삼육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정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신한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서울) 중앙대학교(안성) 총신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양대학교(서울) 한양대학교(ERICA)

서울·경기지역 장애대학생지원 실무협의회

여는 글

“……(전략)……“신의 은총인지, 어쩌다 이렇게 태어난 때문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몰라도 덕분에 나는 지금 여기 서 있다.” 그런 겸손함은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가혹한 성공 윤리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해준다. ……(후략)……”

(『공정하다는 착각』 1中,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대학과 대학생도 그 변화의 물결 안에 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 학문을 논하던 대학 캠퍼스의 풍경은 비대면-온라인으로 옮겨갔고, 직업 현장에서는 재택근무가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역동 속에서 장애대학생들은 비대면-온라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물론, 진로 계획이나 취업 준비 과정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경기지역 대학 장애대학생지원 실무협의회’에서는 [장애대학생 취업수기 공모전]을 실시하여,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에게 진로·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공모전의 입상작에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졸업한 장애인 선배들의 진로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경험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는 우리의 삶은 능력주의, 학벌주의 등 여러 국면에서 공정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무조건적인 성공 지향을 벗어나, 겸손한 자세로 공동체의 공동선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샌델 교수의 조언이 장애대학생 여러분들의 진로 계획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 한 번쯤 되새겨 보기를 권합니다.

짧지만 장애인 선배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이 장애대학생 여러분의 학업수행, 대학생활, 그리고 진로·취업 준비 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경기지역 장애대학생지원 실무협의회 회장 이주희

C · O · N · T · E · N · T · S

간절한 마음으로 뒤늦게 도전한 공기업 이직 성공기 ········· 5

장애를 강점으로 바꿔보고자 노력 중인 한 취준생의 이야기 ········· 9

지금까지 벼텨왔던 자신 ········· 13

계획을 망쳐도, 좋아하는 것만 해도, 실수만 해도 정말정말 괜찮아 ········· 15

감동을 주는 일 ········· 19

간절한 마음으로 뒤늦게 도전한 공기업 이직 성공기

당선작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뇌병변장애)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지방직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공기업으로 진로를 바꾸어 현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학시절 딱히 정해둔 진로가 없어 부모님과 친척 어른들의 권유로 공직에 입문했지만, 공직에 대한 실망감과 아쉬움으로 새로운 진로를 찾아 공기업으로 이직하게 됐습니다. 공기업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고, 두 번의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들이 많아서 저는 '진로를 찾는 과정에서의 고민들'과 '공무원과 공기업에서의 직장생활'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출생 당시 의료사고로 경증의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친구들로부터 자주 괴롭힘을 받아 성격이 내성적인 편이었고, 그런 저를 걱정하신 부모님께서는 제가 안정적인 공직생활을 하길 바라셨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은 없었지만, 다른 대안이 딱히 떠오르지 않아 저 역시 전공으로 행정학을 선택했고, 첫 직장도 지방직 9급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온전히 저의 의지로 선택한 진로가 아니라 수험기간에 많이 방황했고 힘들었지만 합격한 후의 직장생활은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공직이다 보니 부서배치나 업무분장에서 장애인 직원에 대한 배려를 받아 첫 직장생활은 비교적 무난하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센터에 배치를 받고 그곳에서 제가 맡은 업무는 '장애인 복지'였는데, 저도 장애인이기도 하고, 대학시절 장애학생 동아리활동을 했기에 업무가 낯설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급여가 적어 아쉬웠지만, 업무나 직장 내의 문화 등 다른 여건들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나름 만족스러운 직장이었지만, 직장생활을 반 년 정도 하다 보니 점점 직장에 대해 실망스러운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 중 몇몇이 공직자로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나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공직에 대해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던 업무도 처음엔 보람 있었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업무가 시시해졌고 업무량도 많지 않아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몸은 편했지만 장기적

으로 볼 때 저의 역량이나 경력개발에 있어서 공무원은 크게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어렵게 합격해 다니게 된 직장이었지만, 공직사회의 실망스러운 모습과 업무에 대한 매너리즘은 저로 하여금 금세 새로운 진로를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진로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저의 장애와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공무원이 되라는 주위 어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전공도 행정학을 선택했고, 대학시절 내내 공직 외의 진로는 고민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은 사기업이나 로스쿨 등 다양한 진로를 알아보고 고민했지만 저는 공직 외의 진로에 대해선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기업은 경쟁이 치열하고 정년보장도 안되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다보니 사기업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대학생 때 잠깐 ‘한국 IBM’에서 인턴을 한 경험이 있어 외국계 기업에도 관심을 가져봤지만 이 역시도 준비과정이 너무 막막하여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채용공고가 뜬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해외여행을 갈 때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면서 공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공사 역시 조직문화나 급여 등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다고 들어 공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공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본 끝에 저는 공기업으로 새로운 진로를 정하게 됐습니다.

공기업으로 진로를 정한 이유는 우선, 공무원처럼 정년이 보장되면서 급여나 복지는 공무원보다 더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업무도 지엽적이고 단순한 일보다는 좀 더 저의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준비과정에 있어서도 대학시절 따놓은 높은 토익점수와 컴활1급과 한국사1급 자격증이 있었기에 기본적인 스펙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서류전형부터 통과하기 힘들다 들었는데, 시험 삼아 지원한 결과 서류전형에 통과하면서 다른 공기업도 서류전형은 통과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 전공과목으로 행정학을 보는 기업들이 좀 있었기에 필기전형에서도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공과목 외에 직무적성검사(NCS)를 보긴 했지만, NCS는 조금만 준비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기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2017년 초부터 공기업으로의 이직을 조금씩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목표로 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로 연말에 채용공고가 올라왔기에, 여름에 퇴사를 하고 연말 취업을 목표로 하반기에 본격적인 준비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장생활과 수험생활을 병행하기 쉽지 않았지만, 당시 다니던 직장에 대한 실망이 컸기에 이직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평일엔 3~4시간씩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NCS는 조금만 공부하면 된다는 생각에 전공과목부터 준비했는데, 이전에 공부한 과목임에도 많은 내용을 잊어버려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했습니다. 매일 꾸준히 공부했지만 공부시간도 부족했고, 좀 더 부지런하지 못했는지 진도가 생각보다 더뎠습니다. 데드라인으로 잡았던 7월이 되어 퇴사의 뜻을 부모님께 말씀드

렸을 때 부모님께서는 처음엔 완강히 반대하셨지만, 공무원을 그만두고픈 마음이 강했기에 겨우 부모님을 설득해 공직을 그만두었습니다.

퇴사를 하니 절대적인 시간확보가 되어 취업준비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고 얼마 안 되어 저의 계획이 틀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연말에 공고가 뜰 것이라 생각했던 기업들이 9월에 연이어 채용공고가 올라온 것입니다. 하는 수없이 해당 기업들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서류전형은 통과했지만, 필기시험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번번이 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전공시험은 전부터 꾸준히 해왔기에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지만 조금만 준비하면 될 것이라 착각한 NCS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퇴사하고 한두 달 잠깐 준비했기에 시험을 볼 때마다 절반 정도 문제를 못 풀고 시험지를 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공기업 준비 카페에서 'NCS는 단기간 노력으로 실력을 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다보니 '과연 내가 NCS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직장을 그만둔 것은 아닌가' 하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기에 그저 묵묵히 계속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NCS 실력이 매우 부족했던 저는 인근 국립대학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NCS 스터디 모임에 참여해 주3회로 문제를 풀며 부족한 실력을 보충했습니다. 처음에는 빠르게 문제를 푸는 사람들을 보며 기가 죽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3~4개월 꾸준히 연습하니 조금씩 실력이 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실력이 오르기까지 기다린 그 3~4개월이라는 시간은 그 당시엔 정말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점차 실력이 오르면서 공기업 실전에서도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었고, 12월 서부발전 필기시험에서 처음으로 필기합격의 맛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최종면접에서 떨어졌지만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NCS를 처음으로 통과한 기쁨은 자신감으로 이어져 계속 공부를 하는 데에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목표로 했던 2017년 하반기 채용일정이 끝나고 2018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스터디원 모두는 취업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1월1일에도 도서관에 나왔고, 우리는 이러한 간절함이면 꼭 붙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2018년이 되고 며칠 안 되어 한국도로공사 채용공고가 가장 먼저 떴습니다. 이전까지 거의 필기시험에서 탈락했기에 역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스터디를 하면서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테스트해보자는 마음으로 입사지원서를 냈습니다. 필기시험을 보고 나왔을 때는 사실 잘 봤다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두 번째로 필기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카페에서 면접 스터디를 구성해 1·2차 면접 모두 철저히 준비했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한 끝에 저는 2018년 한국도로공사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최종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목표한 기업은 아니지만, 다른 기업들에 도전하고 번번이 실패하면서 생각보다 취업의 문은 높고 저의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저는 입사 4년차로 공사에 입사하고 나서 지금까지 솔직히 힘들고 후회되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공무원처럼 공기업 역시 '공공부문'이라 고용안정성이 강해 많은 직원들은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조직 전반적으로도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기존의 업무방식만을 고수하는 모습들에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공무원 업무가 단순반복적이라 좀 더 도전적이면서 저의 경력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안정성도 같이 확보하기 위해 공기업으로 진로를 정했지만, 경력개발 측면에서는 제 생각과 달리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급여나 복지 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조건이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직장이든 장단점이 있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취업문이 얼마나 좁은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취준생들이 그렇겠지만 장애학생들은 특히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뒤늦게 다시 진로를 찾으며 많은 고민을 했으니까요. 진로를 다시 찾으면서 '대학시절 좀 더 다양한 진로를 일찍 고민했으면 지금의 직장보다 좀 더 제가 원하던 곳에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에는 장애인은 사기업에 적응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장애가 업무수행에 절대적으로 큰 걸림돌인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공공부문이 민간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제도나 인식에서 나은 것은 사실이지만, 예전에 비해 그래도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취업난의 현실을 감안해보면 그저 합격만 시켜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앞으로 30여 년을 다니게 될 직장인만큼 좀 더 일찍 그리고 깊이 많은 고민을 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알아보고 나서 도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들보다 절실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뒤늦게 진로를 다시 찾아 남들보다 뒤쳐졌다 생각한 만큼 남들보다 더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공부했고 그 덕분에 지금의 직장에 입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강점으로 바꿔보고자 노력 중인 한 취준생의 이야기

당선작

수원대학교 경제금융학과(뇌병변장애)

코로나 전염병이 바꿔버린 2020년, 그리고 2021년 뉴스와 신문을 통해 들려오는 취업 시장의 어려움, 그리고 비장애인분들도 너무 힘들어하는 시기이기에 상대적으로 장애인분들의 고용에 관해서 구직시장은 관심이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장애인 대학생 학우분들이 절반은 자포자기로, 절반은 고용 시장이 나아지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아직은 장애인 구직자이기에 제 이야기가 모두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좌절하지 않고 대학교에서 학업을 진행 중인 지금 ‘미개척 시장을 극복하자!’라는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이 글을 쓰는 충분한 이유가 되고 기쁨이 될 거 같습니다.

대학교 입학 당시에 저는 비장애인이었으나, 불의의 사고를 당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양쪽 모두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사고 후, 장애인이 되고 가장 힘들었던 생각은 ‘내 몸도 제대로 관리하기 힘든데, 과연 회사가 나를 믿고 고용을 해줄까?’라는 막연함과 두려움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 이유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수많은 진로와 인생 고민을 해보았고 그 결과로 ‘저는 거절을 당할지라도 일단 도전이라도 해보자’! 라는 정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인터넷과 블로그를 통해 장애를 가졌지만 이를 극복하고 취업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는 분들의 기사를 읽고 좋은 마음가짐을 본받고 배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 역시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졌을 때 오랜 기간 병원에서 지내셨던 분도 많았고, 방황을 길게 하였다고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장애라고 해서 인간의 모든 부분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팔을 이용해 신체 능력을 극대화하거나, 모두가 몸이 불편하기에 도전할 수 없으리라는 선입견을 부수고, 장애인 분야에서의 1등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신 분도 있었습니

다. 가끔 의학 뉴스나 언론매체에서 시각장애인분들의 청력 반응과 손의 감각은 비장애인분들보다 수십 배는 더 감각적이고 뛰어나신 분들의 얘기를 보고 들었던 저에게 ‘인간의 신체는 자기가 쓰기 나름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저의 취업 시장에 응용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리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라고 해서 너무 취업에 대해서 먼저 자신감을 잃어버리거나, 자포자기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장애인 대학생 학우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분명 쉽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장애인 구직시장은 비장애인분들의 시장만큼 치열하고, 높은 학점과 자격증, 다양한 경험을 준비해왔던 사람만이 취업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는 곳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기업을 비롯한 공무원 시험에서도 장애인분들의 시험점수는 일반 고용보다 그 점수가 낮고, 비장애인분들이 말하는 압박 면접이라는 개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대혜택을 회사 측에서도 최대한 제공하고자 노력해주는 것을 저는 구직시장에서 보았고 직접경험했기에 이 부분을 자신감 있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채용시장도 엄연히 경제적인 시장이고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마땅한 실적을 얻고자 하는 곳이기에, 장애인분들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을 심사하는 것은 당연한 판단이라 할 수 있고 저희도 그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제가 장애인 대학생분들에게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요소들을 준비하자는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단점으로 보지 않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장애인분들만이 아니라, 각종 사회봉사단체, 장애인 가족분들의 부양을 돌봐주시는 분들 역시 기업이라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고객이고 동시에 이 수요를 파악하고 활동을 진행하여 실적을 실현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점을 우리가 가진 또 다른 강점으로 파악했고, 장애인 전형으로 응시기회가 있을 때 자기소개서에 적극적으로 넣어서 저를 강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카페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들어가서 경험을 하셨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동에 한계가 있는 분들은 핸드폰을 이용해서 면접의 분위기를 조금이라고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저의 사례로는 대기업에서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비장애인분들과 면접을 본 적이 있기에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면접에 들어갔을 때 그 분위기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가 너무나 힘들 정도로 굉장한 압박감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때 몸의 이상 반응이 더 심하게 오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로 아쉽게 지원한 회사에 탈락하고 말았지만. 조금씩 그때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혼자 그리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모의면접을 하니 긴장감이 조금씩 줄어들고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침착함을 얻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구직시장은 의외로 저희가 정보를 잘 찾아보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지만, 전문적으로 이런 고민을 해결 해주기 위해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학교의 취업 관련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런 양질의 정보를 습득하셨으면 합니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장애인 의무고용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 많은 공고문을 내지만, 장애인분들이 찾아오지 않아 오히려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장애인분들을 고용하는 업체의 경우, 정부 사업 참여에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급여 일부분을 보조해주는 정책을 통해 기업의 고용유도를 증가시키고자 많은 정책을 추진 중이며, 다행히 기업들도 이에 맞춰 기업의 상황에 맞게 시, 청각 장애인분들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그 기회를 더 빨리, 더 좋은 조건으로 얻을 수 있음을 장애인 대학생 학우분들은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장애인분들이 가장 부각을 해야 할 부분은 필기, 실기 시험 성적 등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만약 일반기업을 도전하신다면 자기소개서에서 장애의 극복 또는 노력사례, 그리고 면접에서는 자기의 진정성을 더 강하게 보여 줄수록 취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장애를 가졌기에 저희는 고난을 상대적으로 더 빨리 경험해보았고, 이를 극복하고 취업 시장에서 도전하고, 그를 위해 쌓아온 경험을 얘기하는 것은 비장애인분들이 가진 역경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신뢰도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기업의 어려움과 비교하여 우리의 극복사례를 대입해 표현한다면 면접관들은 저희만의 독특한 이 관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만약 의학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필요한 장애가 아니라면, 저는 해외 취업을 도전해보는 것도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제가 일본에 대외활동 목적으로 방문을 하였을 때, 다른 장애를 가졌던 일본인 친구와 잠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서로 영어가 가능해서, 영어로 일본의 장애인 취업과 일본의 고용 시장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일본인 친구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좀 더 선진적인 장애인 시장이라는 분야를 연구하고 기회가 된다면 거기서 취직을 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스스로 너무 막연함으로 인해 취업 시장을 너무 한국에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저의 장애는 주기적으로 한국병원에서 치료를 진행해야 하고, 사고 발생 시 해외에서의 치료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기에 이 시도는 아쉽게 무산이 되었지만, 다른 장애인 학우분들 중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우분이면 저의 방법을 한번 실현해 보면 한국에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는 개척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봅니다.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분명 쉽지는 않고 저 역시 아직 구직을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나서, 이 상태를 단순하게 비관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알게 되었고, 개척해서 1인자로써 도전하자는 희망을 품은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100%의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실패해도 충분히 많은 것을 배울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한국은 장애인에 대한 취업 인식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짧기에 장애인고용 개념인식이 낮은 편이나, 저출산으로 인해 비장애인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이에 따라 회사들은 장애인 대학생을 위한 취업공고가 점진적으로 늘어갈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저희한테 옵니다. 저도 그것을 믿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애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표현하듯이, 저희의 취직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이뤄내고 실현될 것입니다.

모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도하며 후배 장애 대학생분들에게는 멋진 대학 생활이, 그리고 비슷한 나이의 취업을 준비하는 장애 학우분들에게는 취업과 더불어 행복한 인생이 기다리기를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왔던 자신

당선작

대림대학교 건축학과(청각장애)

안녕하세요. 저는 청각장애 2급이고 현재 직장인인 박준하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어렸을 때부터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었고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하는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 하나 정도는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고 취미도 여러 가지를 해보고 뭐 조립하거나 전시회를 가거나 미술을 한다든지 등 이런 거를 해오면서 자기에게 잘 맞는게 무엇일까 찾아보았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는 원래 산업디자이너쪽으로 생각했었는데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건축학부라는 동아리를 접하면서 처음에는 어려우면서 뭔가 답답한 그런 느낌을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하다보니까 ‘어? 이게 재밌네? 이거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레 건축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면서 건축에 대해서 찾아보고 대학교 진학에 대해서도 건축관련 대학이 어디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진 상태로 이것저것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건축에 대해 찾다 보니까 건축분야 쪽에서 유명한 대학교들이 있었는데 저는 실무를 빨리 배우고 싶었고 이론보다 실기를 더 원했던 상태였기에 전문대를 선택 했습니다. 이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길 바라면서 진학을 했었는데 그 결과로는 만족할만한 결과는 아직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기회도 있고 발전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휴학을 했을 때, 두산건설에서 일해보았었고, 대학교 졸업한 후에 종합건설에서 일해보고 지금 현재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산건설에 취직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사무직이었었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위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자신감 또 저를 뽑아준다면 이것만 큼은 잘할 자신이 있다라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두산 건설은 그냥 단순하게 한번 일을 해봄으로써 어떤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겪어보고 싶어서 일한 겁니다.

첫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사람들과 관계도 좋아야 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은 진짜 만만치 않다 라는 느낌도 강했습니다. 이 생활에서 이겨내려면 자기계발은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다시 다니면서 기본적인 컴퓨터라든지 디자인 쪽 자격증을 취득하면

서 졸업 후 취직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종합건설회사에 취직을 했었습니다.
그 회사에 취직을 하면서 건축공무라는 일을 하게 되었었는데 팀원들하고 호흡을 맞추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조직 생활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배우면서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든지 피드백을 받을 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고침으로써 바로 수긍하는 자세를 가져야했습니다. 장애가 있다 해서 위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뽑아준 이유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뽑아준겁니다.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뽑지도 않았을 거고 믿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뽑아줬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직원들하고도 많은 의사소통을 하면서 제가 못 듣거나 잘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메신저나, 필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100% 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다 해서 보고하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로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 향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취업길에 대해서 좀 더 넓히게 해줄 수 있는 영향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편견이 깨지고 같이 하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해서 기회가 많아지는 길입니다. 하지만 취직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학교도 제약이 있었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이것만으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까지 갔지만 실패한 것도 있었고 애초에 아예 불합격이라는 연락도 받았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꼬리표를 안보이게 할려고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자기계발을 하면서 봉사활동이나 다른 스펙을 쌓아서 나는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믿어달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줄 만한 캐리어를 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회사 저회사 옮기면서 조직생활에 대해 배우고 일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면서 지금 현재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로결정은 20대후반까지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대 후반까지는 이것저것 경험을 해보면서 쌓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기에 진로결정은 20대후반에 해도 늦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업은 첫 번째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위축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 라는 속담처럼 실패해도 여러번 노력을 해서 오뚜기처럼 일어서고 꾸준히 자기계발을 하면서 도전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고 사람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봐야 사람들이 어떤 주제로 하는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직장생활은 더 어려울 텐데 미리 예습을 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 들하고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의 나로 됐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망쳐도, 좋아하는 것만 해도, 실수만 해도 정말정말 괜찮아

공모작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지체장애)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경제학과 다니는 스물세살 최여명이라고 합니다. 취업수기를 적자니 제게 먼 이야기인 것만 같았던 사회라는 공간이 코앞으로 다가 왔다는 게 느껴집니다. 적당한 긴장감과 뜨거운 기대감으로 졸업이라는 마무리, 진로라는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 대학생활 어때요? 생각보다 주눅들 일이 많죠? 돌이켜보면 저도 입학 전부터 학우들과 저 자신을 많이 비교한 것 같아요. 학교 커뮤니티를 훑어보며 '벌써 자격증을 땄네', '어학점수가 엄청 좋네', '대기업 대외활동을 하네'같은 스펙에 대한 자존감이 수시로 떨어졌어요. 마음을 달래려고 이런 저런 컨텐츠나 수기를 찾아보면 조바심이 났어요. 시간관리를 철저히 해라, 핸드폰 보지 마라, 자기개발해라...... 물론 좋은 조언들이지만 저는 그것도 결국 마인드컨트롤의 스펙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줄 세울 수 없을만큼 복잡하고 섬세하잖아요. 우리가 한 행동과 생각에는 모두 이유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자랑을 하기보다 '제가 이런 생각하기 너무 잘했다!'하는 몇 가지 다짐을 소개하려고 해요. 스무살부터 당장 시작하라는 압박이 아니니 편안히 읽기를 바라요. 저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침대에서 배달음식 먹으며 세수도 안한 채로 유튜브 보는 사람이니까 제 말 믿으셔도 됩니다.

계획은 늘 어긋나는 법
〈Before〉: 경제학과 지망, 행정고시 희망자, 시간낭비 싫어함, 내성적인 성격, 운동 아주 싫어함
〈After〉: 사회복지학과 재학 중, 과학기술학 대학원 준비 중, 외향적인 팀플 러버, 수영/농구/달리기/요가 좋아함. 올해 주짓수와 펜싱 도전할 예정.

바로 저의 대학생활 전후입니다! 제가 새내기일 때, 저는 나랏일에서 입신양명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갖고 입학을 했어요. 저는 중고등학생 때 왕따, 은따를 당했어요. 잘하는 게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잔뜩해서 나쁜 사람 벌 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되려고 행시를 생각했어요. 입학 전부터 큰 시험을 준비할 생각이었으니 시간낭비하기가 싫었어요. 고3 담임선생님 조언대로 딱 새내기 1년만 놀고, 머리 깎고 골방에 박혀 시험을 준

비하려고 했죠. 그런데 대학생활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술자리, 게임, 학회, 동아리!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설이 돼버린 새내기라이프들이네요. 그렇지만 사실 저는 공부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주체적으로 공부해야만 하는 대학 강의의 특성과 학회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교재 밖으로 나아갈 수 없는 대학의 배움이 저에게 정말 잘 맞았거든요. 또, 저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건 확실히 아니까 학교 친구들과 밴드도 하고 작곡도 했어요. 제 일을 잘 하고 싶으니까 같이 하는 사람들을 잘 사귈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팀플 조장을 도맡았어요. 어느날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무작정 달리기를 했는데 기분이 좋아졌고, 스트레스를 해소에 가장 좋은 운동을 찾고 싶어서 이것저것 해봤어요. 그리고 사회의 소수자와 살을 부딪히며 살아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경제학과가 아니라 사회복지학과에 갔어요. 또 어쩌다보니 지금은 이공학 공부를 하게 됐어요. 와, 저 정말 뭔가를 많이 했네요. 이럴 생각이 전혀 아니었는데! 계획에 없었는데!

재미있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저라고 낭패가 없을까요? 아니오, 정말 많아요. 사실 지금도 언제 생각이 바뀌고 계획이 어긋날까 불안해요. 그런데 계획이 틀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자기이해가 달라지면 가치관과 선호가 같이 달라질수밖에 없어요. 그날 기분과 컨디션에 따라 식사 메뉴를 바꾸는 마당에 마음이 안 바뀔 리가 있나요? 그러니 다짐과 계획이 바뀌는 것에 죄책감을 많이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고, 언젠가는 난잡해보이는 여러분의 행보가 취향과 적성이라는 삶의 큰 기둥으로 수렴할테니까요. 덧붙여 대학은 성숙하고 이타심이 있어야만 좋은 사람을 사귈 수 있는 곳이에요. 대학이라는 쿠션에서 여러분이 자기를 이해하고 표현할 방법을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민하고 시도하고 성찰하다보면 저처럼 여러분의 계획도 온통 흐트러질테지만 정말 재미있고 만족스러울 거에요. 그래서 저는 계획 망친 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것만 해도 괜찮아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중 무엇을 할까 고민될 때에는 잘하는 것을 하라.' 많이들 들어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답이 중간에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좋아하는 것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성공하려면 욕망을 억누르고 살아야한다는 욕망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고싶은 일과 해야하는 일을 부, 명예, 권력같은 세속적인 가치로 저울질합니다. 해야하는 일은 대개 입학, 졸업, 취업, 결혼같은 인생의 중대사이니까 하고싶은 일들은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리죠.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고 고집이 세서 하고 싶은 일은 수박 겉핥기 식으로라도 해봐야했어요. 또 어머니가 갈팡질팡하는 제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이봐, 해보기나 했어? 하고 후회해!'라고.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동기들, 후배들 어학점수 따고 자기소개서 쓸 동안 인권단체 만들고 광화문 광장에 나가고 성적과 스펙이 아닌 일로 밤을 꼴딱 새가며 공부를 했죠. 제가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사서 고생하는 애, 손해보는 애로 비춰졌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기 위해 경제학과가 사회복지학과로 진학했을 때 다들 제게 한 소리 하더군요. "사회복지학과보다 경제학과가 돈 더 많이 벌잖아. 넌 성적도 되는데 내가 너였으면

경제학과를 갔다." 제가 좋아서 했던 선택이 존중받지 못할 때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후회없는 선택이었어요. 실용적인 성격의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다보니 이론의 필요성을 느껴서 경제학과를 복수전공했고, 제가 진짜로 원해서 하는 경제학 공부니까 취업을 보고 동 과에 진학한 친구들처럼 번아웃을 느끼거나 적성문제로 고민할 일이 없었어요. 결국 사회복지학과를 간 건 좋은 선택이었어요. 이 외에도 동기들 영어학원 다닐 때 음악학원 다니며 기타 배운 것, 같은 과 친구들과 어울릴 때 타과 친구들과 논 것, 시험 스터디 가입할 때 친구들과 예술 동아리를 만든 것, 도서관 다닐 때 알바한 것 모두 제가 좋아서 한 일이었어요. 저는 토익토플 점수도 없고 전공분야 인맥도 없고 쓸데없는 동아리나 들어가고 시간에 쫓겨사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저만의 이야기가 있고 반성과 극복이 있고 자신의 강점과 보완점을 무척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것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만 하다보면 하기 싫은 일을 해야하는 순간이 반드시 와요. 꽤 많은 순간에 하기 싫은 일이 좋아하는 일의 베이스가 돼거든요. 저의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대학원 전공으로 과학과 공학이 기본기가 되는 학문인 과학기술학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고등학생 때 물리학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과학기술학 학위를 따려면 물리학을 잘 알아야해요. 지금도 물리학이 싫지만, 제가 관심있는 분야인 과학기술정책을 잘 알고 싶으니까 물리학도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멀리가지 않아도 당장에 여러분이 신발을 사고 싶어서 알바를 구하는 일, 교환학생을 가고 싶어서 토익 시험에 응시하는 일, 창업을 하려고 대출과 투자를 알아보는 일 모두 그래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하고싶은 일과 해야하는 일 중 하나를 고르려고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솔직하다면 반드시 길을 찾을 거에요.

지금은 실수할 때야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저보다 학년이 낮은 후배님들을 생각하고 글을 쓰다보니 친절하고 싶어서 말이 길어졌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바로 위의 말이에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스물몇살밖에 안된 지금 돌아봐도 우리는 얼마나 작은 일들에 고통스러워했나요? 그게 그렇게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나요?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어차피 지나갈 일에 너무 많은 땀과 눈물을 쏟지 말아요. 상처를 피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언젠가 맞딱트릴테고 온몸으로 그 순간을 가로질러야해요. 세상은 이걸 실수 또는 실패라고 부르죠. 참 아픈 말이에요. 미흡한 결과에 붙이는 이름표니까 기분도 나쁘고요. 그렇지만 시야를 넓히면 실수와 실패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같아요. 저는 제가 매순간 실수하고 실패한다고 생각해요. 슬프고 주눅들지만 많이 해봤으니까 금새 추스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이 능력을 사회복지학에서는 '회복탄력성'이라고 부른답니다. 바닥을 찍어도 탱탱볼이 그러하듯 튀어오르는 힘! 그러니까 실수와 실패는 대단한 일이나 괴로운일이라기보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을 결과가 아닌 과정 차원에서 재평가하는 노력을 기울이길 바라요. 분명 쓸모없어 보이던 활동들이 가치있게 보이기 시작할거에요. 그리고 툭까놓고 말하자면 지금 실수하지 언제 실수해요? 지금 빛지지 언제 빛져요? 지금 예쁘지 언제 예쁠거에요? 시간이 갈수록 모든 시도에 리스크가 커지고 강점을 세공할 기회는 줄어들어요. 그러니

까 여러분의 강함을 무조건 믿으세요. 여러분이 가진 아름다움을 무조건 믿으세요. 그래야만 하고 또 실제로 그러하니까요. 저도 옆에서 이리 빙글 저리 뒹굴 치고 박고 깨지며 저의 외연을 넓힐게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감동을 주는 일

공모작

고려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지체장애)

나는 의료사고로 인해 오른쪽 어깨에 결함이 생긴 채 태어난 후천적 지체장애인이다. 때문에 부모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재활병동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 치료를 했는지, 의료소송 문제로 애를 먹었는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는지 등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

내가 장애라는 것을 처음 인지한 것은 중학교 시절이다. 내가 다니던 중학교에는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반이 있었다. 당시 나의 친구가 자폐성장애학생의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었다. “도우미활동 하면 힘들지 않냐?”는 철없는 나의 질문에 “나보다 ㅇㅇ(해당장애학생)이가 더 힘들지.”라는 대답을 들었다. 부끄러움과 동시에 그 친구가 멋있다고 느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난 중학생 시절의 기억으로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높은 의욕으로 인해 각종 대회와 공모전에 참가하였으며 주말에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꿈을 키워 나갔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남보다 힘들다면 힘들게, 똑같다면 똑같은 고등학교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내 의욕과는 다르게 책상에 앉아 있을수록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워지는 어깨와 극심한 통증으로 스트레스는 쌓여갔고, 심지어 잠에 쉽게 들지도 못했으며 성적은 자연스럽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들에게서 “쟤는 진짜 열심히는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도 무덤덤한 것에 비참했다.

병원으로 가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내가 왼손잡이인 것도, 오른손을 오래 들고 있지 못하는 것도, 악력검사 때마다 오른손만 10을 간신히 넘기는 것도, 그리고 지금처럼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왜 지금껏 한 번도 본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냐고 물으면, 그저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불편한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나의 장애가 크게 눈에 띄지 않았으며, 통증이 있어도 그저 내가 운동신경이 없거나, 체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내가 장애인이기에 가지는 한계가 있어도 나에게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다. 동일한 병동에서 진료중인 사람들 또한 나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다. 나와 같은 불편함을 지니고 있을 이름 모를 사람들에게 동질감을 느꼈다.

20살이 된 나는 간호학과와는 무관한 고려대학교의 타 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나의 모교는 장애학생에 대한 인프라가 상당히 다양하게 구축되어 나 또한 그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나는 2학년이 지나도록 간호학과로 진학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나의 간절한 바램과는 다르게 평범한 대학생활만을 이어가던 중, 동계방학 중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청년인턴 근무를 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인공달팽이관과 같은 의료보조기구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진 청각장애를 가진 학우를 만나게 되었다. 지금껏 도움을 받기만 하였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나 또한 같은 처지의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그 때 불현듯 교내 장애학생지원센터 근무 선생님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재학기간 동안 장애학생지원센터 근무 선생님을 통해 각종 장애학생 지원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처음이기에 어색하고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어 본인 스스로 위축을 받고는 했다. 하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시려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 같은 도움을 받는 장애인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교내에는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는 사람을 흔하게 볼 수 있었지만, 교외에서는 그들의 존재를 쉽게 찾아보기 어려웠다. 학교에서는 보조계단과 낮은 경사로 그리고 보조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이와 다르게 교외에는 비장애인조차 보행하기 힘들 정도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장애인을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중학교 때 도우미 친구처럼, 장애학생지원센터 선생님처럼 나와 같은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다짐했다. 내가 가진 재능을 통해 다른 장애학생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대입을 준비할 때 면접과정에서 “타인에게 자신이 감동을 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 때의 나는 마땅한 답변을 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후배 장애학생들과 교내 멘토링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이후 다른 장애인들에게 내가 다른 도우미들에게서 받았던 것과 같이 감동을 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장애라는 한계를 넘어서 비전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2021 장애대학생 취업수기 공모집
2021.06.04. 발행

이 책자의 저작권 및 사용권, 2차 저작권은 본 협의회에 귀속됩니다.

서울·경기지역 장애대학생지원 실무협의회
usgu2020@naver.com